

사설

본지가 31일자로 창간 1주년을 맞았다. 지난해 신문 창간을 앞두고 사무실을 얻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주민들을 만나 지역언론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협조를 구할 때만 하여도 대다수 주민들은 기대보다는 우려를 많이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무엇보다 가장 큰 우려는 재정적인 문제였다. 다음으로 지면을 구성할 '뉴스거리'를 어떻게 채우느냐 하는 걱정과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며 공정한 보도를 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는 시각도 있었다. 이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본지는 일주일마다 신문을 발행해 독자들에게 전달해야 한다는 소명감 때문에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총 46호의 신문을 내보내며 창간 첫 돌을 맞을 수 있었던 것 같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앞서 밝힌 3가지의 우려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발행되고 있는 대다수의 신문들이 안고 있는 고민과 비슷하다. 본지처럼 1개 기초자치단체를 영역으로 발행되는 지역주간신문은 물론 광역자치단체를 영역으로 발행

중앙일간신문처럼 '큰 신문'은 신문으로 여기면서 지역주간신문은 '신문 같지 않은 신문'으로 치부하곤 했다.

비슷한 사고로 비슷한 사람이 사망했을 경우 서울에서 발생하면 며칠 동안 보도가 계속되지만, 지역에서 발생하면

용을 하면서, 지역신문에 실린 기사는 전혀 인용하지 않는다. 기사의 질이 한참 떨어지고 크기가 작더라도 큰 신문에 실린 것을 더욱 중시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고향을 사랑한다고 말한다.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라는 말이 옳다고 한다면, '가장 지역적인 것이 가장 한국적'이라는 말도 가능하다. 지역신문이 '열악한 환경'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부분을 말하는 것이다.

창간 2년차를 맞는 올해도 본지는 이러한 오해와 편견이라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언론활동을 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단 한명의 독자가 있더라도 신문을 제작해 보급하는 작업을 멈추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 광야를 달리는 선구자처럼.

광야를 달리는 선구자처럼

되는 지역일간신문, 나아가 전국 단위의 중앙일간신문도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것은 마찬가지다.

본지가 대다수 신문들이 안고 있는 이런 문제보다 더욱 힘들어하는 것은 지역신문에 대한 편견과 오해다. 관공서는 물론 많은 주민들은 지역일간신문이나

작은 꼭지기사로 생색만 내거나 아예 다루지 않는 중앙언론들의 행태가 잘못된 것임을 알면서도 자기 지역에서 발행되는 지역신문은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다.

대다수 정치인들도 자신들의 공적을 소개할 경우 큰 신문에 실린 기사는 인

금강칼럼

김 종 식
객원논설위원



우리 고성신문의 새로운 비전

세월은 살같이 빨라 창간 1주년을 맞이하여 감회가 새롭다. 그동안 물심양면으로 아껴주신 애독자 여러분과 설립자를 비롯하여 불철주야 애쓰는 편집국장, 기자 그리고 후원해 주시고 격려해주시는 주민들의 가정에 행운의 여신이 함께 하기를 바라고 행정관서 관계관에게도 기쁜 마음을 전한다.

석학 주희의 천경지위(天經地緯)중에 '춘 불경중추후회(春不耕從推後悔)'라는 금언이 있다. 모든 일은 때가 있다는 것이다. 봄에 씨를 뿌리지도 가꾸지 않고 가을에 추수를 기대하기 어려우면 후회할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는 것이다. 냇물이 흘러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것처럼, 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주어진 존엄은 다시 오지 않으나 이제도 늦지 않으니 유효적절하게 값진 하루하루를 보냈을 때에 명실상무한 꿈의 실현이 이루어질 것이 확실하다. 따라서 기회 포착주의를 교훈으로 삼는 다는 것, 또 경계하여야 할 몇 가지 일이 있다. 생명은 소중한 것이고 단 하나란 것에 이론이 없다.

강인한 정신력으로 자신을 경계해야

먼저 철저하고 강인한 정신력으로 자기 관리를 하는 일이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 자기 자신에게 물어 인식하여 자신을 경계(警戒)중 경계를 한다는 것이다. 생의 철학자 이이께서 남긴 경종의 글이다. 그리고 너를 위한 생활이 필요하고 경계하는 태도

도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러한 일들이 곧 나에게 돌아오는 삶이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상은 선각자들이 나에게 준 촛불이었고 때로는 햇불이 되었고 태양이었으며 나의 길벗이 아니었던가!

기독교사상에선 사랑과 의를, 불교 사상에선 자비인욕(慈悲忍辱)사랑과 가엽게 여기고 욕됨을 참음), 유교사상에선(인의예지신, 仁義禮智信), 도 사상에선 무위자연(無爲自然: 도덕의 표준), 회교규범(이즈람: 도덕 예 법률, 정의관습, 일상생활규범)은 사회생활 질서를 유지시키는 값고 고귀한 생각을 가슴에 새겨두는 일이다. 이는 비장한 무기가 될 것이다.

이 진리의 비장은 어디에 있을까! 아마 이구동성으로 서적에 있다고 대답할 것이다. 경전이나 교양이나 고전이나 소설이나 문학이나는 마음속에 있다는 것이다. 배움에는 일생동안 배워도 못 배운다는 유행어처럼 일반화 되어 있듯이 이 말엔 넓고 깊

은 철학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환안하면 배움을 받고 주었으나 찾지 못했기 때문에 독서 강의 세미나 심포지엄 등을 통하여 이리저리 찾는 길이라면 결국 글을 읽는데서 발견할 수 있다 하겠다.

날아가는 기러기는 귀하게 여기고 마당에서 뛰노는 닭은 천하게 여기는 바보 노릇은 하지 말아야 한다. 소금가마니를 물로 끌고 가라는 아버지, 이산을 저쪽으로 옮기라고 하는 아버지, 우직한 자식이 되어야 하는 옛 이야기가 아닌 이 소중한 말을 잊었는가!

시종여일(始終如一) · 시종일관(始終一貫)

생각해보자 마당에서 뛰노는 닭도 소금을 물로 끌라는 것도 산을 옮기라는 말도 다시 듣지 못 한다고 할 때에 글 읽기를 컴퓨터 앞에 앉는 이 시기를 놓치지 말아야 하는 순간이다. 이 값진 이 시기가 황금기

임을 뼈저리게 통감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철저하고 면밀한 자기관리주의를 가슴속에 묻혀 실천하여야 할 것이다. 급변하는 지구촌 시대에 부응하는 최대과제의 해결책이 되겠다.

현인명사들의 교훈에는 '세상의 모든 일은 시작과 끝이 있다'는 것, 시작도 끝도 중요하지만 끝을 잘 맺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유종지미(有終之美)라 하였다. 시인 괴테는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마지막 단추는 끼울 구멍이 없어진다"고 하였다. 셰익스피어는 "끝이 좋아야 모든 것이 좋다"고 하였다.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다는 말이 있다. 세상의 평단은 실제와 일치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출발은 컷지만 결말은 희미하다는 말을 보편적 일반적으로 하는일은 공적인 일인 건 사적인 일이든 간에 용두사미가 많다는 것이다. 시작은 있으나 끝이 없는 것을 유시무종(有始無終)이라 부른다. 우리는 무슨 일이나 시종여일(始終如一)하고, 시종일관(始終一貫)하여야 한다. 끊임없이 흐르는 물은 망망대해(茫茫大海)에 도달한다는 것.

불후(不朽)의 노력이 대성의 열매를 거둔다. 따라서 숨 가쁘게 돌아가는 지구촌의 다사다난(多事多難)의 해를 보내면서 분주한 움직임을 좌시하지 말아야한다는 것이다. 우리 모두 깨어 악재를 호재의 기회로 만든 선도적 지혜를 집약화 하는 것이 최선최대과제(最先最大課題)이고 찾는 해법이다. 임진년을 맞아 고성문화 창달에 진일보 선도적 역할을 다하자.

※오피니언란에 실린 글 가운데 '사설'을 제외한 모든 글은 본지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오피니언란 기고·독자투고 원고 받습니다 ☐이메일 : goseongnews@hanmail.net

고성신문을 만드는 사람들

임 직 원 : 발행인 윤승근 편집국장 최광호 취재기자 원광연 총무과장 김창순 프리랜서 디자이너 이보연
칼럼위원 : 김광섭 김정균 김종식 김지연 남숙희 남영선 박형수 이선국 최금란 한성주 황연옥
시민기자 : 강성희 김일용 김태극 박선애 백옥식 장공순 최돈불

강원 고성신문 • 등록번호 : 강원 다 01183 • 등록일 : 2011년 1월20일 • 간별 : 주간

•우 219-803 •주소 :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간성로 29
•편집국 681-1666 •구독·광고 681-1667 •팩스 681-1668

발행·편집인 윤승근 인쇄인 현재오 편집국장 최광호

•2011년 1월 31일 창간 •구독료 : 한달 4천원, 1년 4만원
•구독료 납부 : 농협 301-0072-9350-81 / 예금주 : 주식회사 고성신문

※ 본지는 주간신문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